

번역코퍼스를 활용한 프랑스어 복합과거 번역문법 연구*

조 준 형
(고려대)

1. 서론

동사 시제는 언어학에서 매우 오랫동안 연구된 문법 요소 중의 하나이다. 주어 및 보어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는 법, 시제, 상 등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 및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 중에서 시제는 행위 및 상황의 시간적 배경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 시제, 특히 과거 시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과거 시제만 하더라도 단순과거, 반과거, 복합과거, 대과거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과거 시제가 복합과거와 반과거라고 할 수 있다. 행위의 선행성을 의미하는 복합 시제 중에서 현재와의 연관성 때문에 복합과거는 가장 핵심적인 과거 시제라고 할 수 있다. ‘조동사 현재+과거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461).

사'라는 구성은 한편으로 영어의 현재완료와 과거를 모두 포괄하고, 다른 한편으로 반과거와 대비되는 이중적인 프랑스어 과거 시제 체계를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매우 체계적으로 보이는 프랑스어의 과거 시제 체계가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일종의 장벽이 되기도 한다. 복합과거는 분명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이론서 및 문법서에서 복합과거는 반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태(반과거)/행동(복합과거)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설명되고 있고, 완료로서 현재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기술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 텍스트는 하나의 좋은 사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과거가 실제로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이 시제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문법서 및 이론서에 제시된 용례들의 의미를 넘어서 복합과거의 의미를 좀 더 유연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험적 그리고 사례 중심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코퍼스 기반 연구로서 번역 텍스트에서 필요한 사례들을 추출해서 이를 토대로 복합과거의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완전히 확립된 복합과거의 의미 기능을 재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역 텍스트를 통해서 한국어의 관점에서 복합과거를 어떻게 볼 수 있으며, 프랑스어학 및 프랑스어 교육에서 번역 코퍼스를 기반으로 프랑스어의 문법 요소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획일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사례 중심의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재 언어학 및 번역학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연구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복합과거

프랑스어에서 복합과거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표현하는 시제이지만, '조동사 현재 + 과거분사'라는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화용적, 의미적 양태를 보인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의 '과거'와 '현재완료'를 포괄하는 시제인

복합과거는 가장 기본적인 프랑스어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프랑스어는 과거를 표현할 때 ‘반과거’/‘복합과거’라는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 이 두 시제를 통해서 프랑스어는 과거를 묘사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표현한다. 복합과거의 이러한 특징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복합과거가 양태적인 사용에서 출발해서 그 이후에 시제의 가치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메나르(Ménard, 1973: 130)에 따르면, 복합과거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현재와 관련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완료의 가치만을 가졌다. 그리고 중기 프랑스어부터 동사와 관련된 주변 요소들(인칭, 상황소, 부사 등)과의 결합 관계에서 단순과거와 대비되는 특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빌메 Wilmet, 1992: 18-20). 복합과거의 시제 가치는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에띠엔느 Estienne의 ‘24시간의 법칙 loi des vingt-quatre heures’이 17세기에 이르러 보다 엄격해지면서 24시간 즉 하루를 기준으로 이보다 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단순과거로 표현하고 24시간 이내의 현재와 가까운 사건은 복합과거로 표현하게 되었다(아르노와 랑슬로 Arnaud & Lancelot, 1803: 344).

역사적으로 변화된 복합과거의 이러한 특징으로 현재 프랑스어 과거 시제 체계에서 단순과거는 이야기(récit)의 시제로 복합과거는 담화(discours)의 시제로 이분화되었다.¹⁾ 그렇지만 복합과거의 이러한 특징이 프랑스어 모국어화자 혹은 프랑스어권 화자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이 시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론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복합과거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새로운 기술을 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이 시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문제는 과거라는 개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팠다’라는 표현이 화자가 속한 맥락적 상황에 따라서 ‘J’était malade’이거나 ‘J’ai été malade’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복합과거

1) 프랑스어에서 기본 과거 시제 중 하나인 반과거는 단순과거와 복합과거 모두와 호응을 이루기 때문에 단순과거와 복합과거만을 언급하였다.

는 현재 결과와 연결되어 완료의 가치를 가진다면 묘사적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으며, 교수자들도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아팠다’라는 한국어 표현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인지 사건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는 의미적 상황보다는 문법적 차원에서 복잡과거를 접하기 때문에 이 시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법적인 접근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예들을 통해서, 그것도 프랑스어 원어만이 아닌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퍼스는, 특히 번역 코퍼스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3. 코퍼스 기반 연구

전통적인 문법 연구는 한 언어의 문법 범주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가설을 세우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코퍼스 기반 연구는 먼저 사례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기존의 모든 이론 연구도 사례를 통한 검증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그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고, 검증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만들어 낸 가공의 사례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가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했고, 언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오히려 학습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

현대 언어학은 코퍼스가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이론 중심의 연구에서 사례 중심의 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강지혜, 2013; 최희경, 2015 참조). 이러한 경향은 언어학을 비롯해서 언어 관련 연구들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케네디Kennedy, 2008; 조준형, 2014). 교육적인 차원에서 코퍼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프랑스어 모국어 화자가 교과서 밖의 표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명관, 2012, 2013; 조준형, 2013; 베넷Bennett, 2010; 드티 외 4인Detey et al., 2011; 플라워듀Flowerdew, 2012).

언어의 이론적 연구는 언어의 실체를 인문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연구의 결과가 교육적인 차원과 연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학교문법에 기술된 내용은 프랑스어에 대한 수많은 언어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과가 프랑스어 교육에 적용이 어렵다면 언어학 연구는 이론을 위한 이론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프랑스어 복합과거의 사례 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 특히 번역 교육 및 불한 대조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프랑스어 문법서에서 예들로 제시된 한국어 번역은 문법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역 형태의 번역이 빈번해서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해당 프랑스어 문법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어 코퍼스가 아닌 번역 코퍼스는 비교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프랑스어의 특정 문법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한국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프랑스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분법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단순시제와 복합시제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며, 더욱이 각 시제는 다양한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복잡한 의미-통사 체계를 보인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많은 언어학자가 프랑스어 시제 체계를 기술해왔다. 시제 연구는 언어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크게 분류하면 상의 측면에서의 연구, 기욤(Guillaume, 1984)의 정신역학적 연구, 이야기(récit)/담화(discours)라는 이원적 대립 관계에서의 분석(벤베니스트Benveniste, 1966; 아담Adam, 1976; 땡그노Mangueneau, 1981)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은 결국 이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 교육에서 언어학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인 기술은 학술적이지만, 때로는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내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프랑스어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 중심

의 그리고 번역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어 시제를 기술한다면 프랑스어 교육에서도 효과적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연구의 출발점은 언어와 텍스트라고 발라르(Ballard, 2007: 17-18)가 말하듯이, 번역은 텍스트의 해석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는 “해석학적 측면과 수사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김재혁, 2008: 261). 번역은 텍스트에 포함된 형식적인 요소(단어, 표현, 문법)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의미, 화용, 문화, 시대 등)의 해석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의 총체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은 번역 연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문법 의미 연구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결과물로서 번역문의 면밀한 분석에서 출발해서 문법을 비롯한 여러 범주의 언어 분석 방법은 전성기(2002, 2016)에 의해 ‘번역문법’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번역문법이란 “텍스트1(원텍스트)의 언어-문화문법과 텍스트2(번역 텍스트)의 컨텍스트(맥락)상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물론, 언어이론, 번역이론, 문화이론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탐색”하는 것이다(전성기, 2007: 247). 여기에는 기존의 대조분석 방법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일반 문법서와 달리 충분한 맥락이 주어진 소설의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전성기, 2002: 4-11). 그런데 프랑스어 학제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번역 오류 분석과 유사하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반면 번역학에서는 학제의 특성상 이러한 분석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번역학은 번역이 연구의 중심 주제이다. 번역 텍스트를 관찰한다는 것은 번역가의 원어 텍스트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자(출발어 텍스트 연구, 원천주의 연구, 해석학적 연구), 출발어와의 비교를 통해 도착어를 연구하는 것이며(목표어 텍스트 연구, 목표주의 연구, 대조 연구),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번역 과정의 연구하는 것(번역 연구, 해석적 연구 및 번역 교육)이다. 물론 번역 텍스트에는 번역의 오류와 어색한 표현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교수자가 학습자들과 그러한 문제점들을 논의한다면, 이러한 과정 역시도 언어 및 번역에 대한 교육적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번역문법 연구 및 코퍼스 기반 연구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만능의 방법론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례를 관찰하기 위해 코퍼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대규모 코퍼스 구축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와 함께 코퍼스를 어떻게 구축할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된 코퍼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코퍼스는 원천 자료로서 많은 실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언어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에서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루크(Looock, 2016)에 따르면, 코퍼스도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구축될 수 있다. 더욱이 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 형태를 넘어서 온라인 자료까지도 코퍼스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번역 코퍼스는 두 언어를 번역을 매개체로 직접적으로 대립 관계에 놓기 때문에 단어보다는 훨씬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서 코퍼스 기반 연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자동번역과 같은 응용적 연구에서도 코퍼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퍼스 기반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한국어 번역을 통한 복합과거 번역 분석

4.1. 분석 코퍼스

복합과거 분석을 위해서 본 논문은 문학 작품으로 구성된 번역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만 단일 코퍼스와 달리 번역 코퍼스는 원문과 번역문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코퍼스 구축 상의 어려움으로 문학 작품만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일반 실용 텍스트와 달리 프랑스 문학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거시제는 복합과거보다는 단순과거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어 코퍼스가 아닌 원문과 번역문으로 구성되는 번역 코퍼스의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번역 텍스트의 존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문학 텍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경우에 비교 코퍼스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원문과 번역문의 문장 수준으로 정렬된 번역 코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의 엄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배제하였다. 비교 코퍼스에서는 한국어의 과거

표현이 프랑스어 원문에서 복합과거의 번역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한국어의 과거 시제는 프랑스어의 기본 과거 시제(반과거, 복합과거, 단순과거) 모두에 대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엄밀성을 위해서 번역 방향이 프랑스어-한국어와 함께 한국어-프랑스어 번역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코퍼스로 사용된 모든 텍스트는 문학 작품이다.

4.2 용례 추출 방법

처음에는 분석을 위해서 코퍼스에서 모든 복합과거를 추출하여 검토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코퍼스 처리 도구가 프랑스어 텍스트에서 복합과거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³⁾, 복합과거 조동사인 avoir와 être의 현재 활용 형태가 포함된 용례를 추출하려고 하였다. 문제는 예를 들어 avoir 동사의 일인칭 형태인 ai의 경우에 432개의 용례가 추출되었는데, 복합과거 조동사로서가 아닌 현재 시제로서의 ai가 포함된 용례도 함께 추출되어서, 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복합과거 조동사인 avoir와 être의 활용 형태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용례 추출의 편의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조동사가 아닌 동사의 과거분사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프랑스어 원문에서 비교적 빈도가 높은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다.

아래 형태들이 프랑스어 소설 원문과 한국어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을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로 나온 빈도수가 높은 과거분사들이다.⁴⁾

-
- 2) 번역 코퍼스는 문장 수준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번역 정렬이 가능하지만 비교 코퍼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엄밀한 의미에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복합과거를 인식시킬 수 있겠으나, 한국어가 포함된 병렬코퍼스이고 프랑스어와 한국어 텍스트를 함께 형태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 4) 코퍼스 분석 도구 AntConc를 사용해서 코퍼스에서 어형(forme)과 빈도수(fréquence)를 분석하였다. 맥락을 살펴보기 이전의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가 반드시 복합과거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순히 어형의 빈도수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위 빈도수에는 대과거 등 다른 복합시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dit(749), fait(487), été(483), eu(140), mort(137), pris(133), vu(103), passé(97), dû(88), assis(77), entendu(76), vue(74), mis(72), parlé(70), venu(69), parti(68), commencé(61), donné(61)

그리고 복합과거의 명확한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과거분사 형태들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지만 모든 용례를 살펴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들만 관찰하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형태는 *dire*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인 *dit*였는데, 실제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예상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형태들이 현재 시제로서의 *dit*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어 원문에서 *dire*는 *il dit*와 같은 화법 전달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번역문에 따라서 한국어로 ‘말한다’ 혹은 ‘말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 1) a. Je sais pas, **dit**-il, après s'être gratté
“몰라요” 종아리를 긁고 난 아이가 **말했다**. (모테라토)⁵⁾
- b. Je ne veux pas apprendre le piano, **dit** l'enfant.
“피아노 배우기 싫어요.” 아이가 **말했다**. (모테라토)
- c. Je n'ai rien **dit**.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모테라토)
- d. Elle ne **dit** rien.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연인)
- e. Elle lui **dit** qu'elle aussi elle est seule.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그녀 역시 외롭다고.(연인)
- f. Elle **dit**: ici tout se sait, ici tu ne pourras plus.
그녀는 **말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말아. 여기서 넌 절대로 불가능해.(연인)

5) 코퍼스에서 각 예문들이 속한 전체 작품은 논문 말미에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제목을 약칭으로 표시하였다.

g. C'est là qu'elle dit: tu leur plais aussi à cause de ce que tu es toi.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다**. 그들이 너를 좋아하는 것도 네가 그런 아이
이기 때문이지.(연인)

Dire 동사가 dit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는 현재 시제, 과거분사 그리고 단순과거이다. 위 예들을 보면 dit는 (1c)와 (1d)를 제외하면 모두 직접화법 혹은 간접화법을 이끄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화 내용 자체가 현재 시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dit를 단순과거로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동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연인』에서는 ‘말한다’/‘말했다’ 두 가지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다. 소설이라는 특성상 문체적인 이유로 과거의 사건이 생생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가 사용되기도 하고 현재 시제가 과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단순히 문법적으로 시제를 연구하거나 학습하는 경우보다 번역을 통해서 문법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복합과거의 이론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제와 비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과거, 전과거, 전미래 등과 같은 프랑스어 과거 시제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복합과거의 의미 및 번역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분석은 배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합과거가 포함된 용례들이 매우 많고, 모든 사례들을 본 논문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동사를 중심으로 몇몇 특징적인 사례들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례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5. 사례 관찰 및 분석

앞서 제시된 고빈도 과거분사 형태들이 포함된 몇몇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어가 먼저 나온 것은 프랑스어 원문-한국어 번역이며, 한국어가 앞에 위치하는 것은 한국어 원문-프랑스어 번역이다.

5.1. fait

2) a. Je vous **ai fait** très mal ?내가 몹시 아프게 **했지**?(슬픔이여)b. Ça vous **a fait** très mal, cet enfant ?그때 몹시 고통스러**웠나요**? 저 아일 낳을 때 말입니다.(모테라토)c. 아마도 내가 또 **잘못한** 것 같다.Je crois que j'**ai fait** une autre erreur.(우리들의)d. 이름도 적지 말고 여기 이 시험지에 여러분이 **당한** 일만 쓰면 된다.N'écrivez pas votre nom, seulement ce qu'il vous **a fait**.(우리들의)

시제 상 반과거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차이를 제외한다면 복합과거는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도 과거시제로 표현될 것이다. 한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보조사 ‘있/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서정수, 1996: 276-282), 복합과거의 한국어 번역은 대부분 ‘있/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⁶⁾ 실제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사례들에서 프랑스어 복합과거의 한국어 번역은 이 보조사를 사용한 번역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성만을 적용한다면 예문 (2c)와 (2d)에서의 번역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두 예문은 한국어가 원문이지만, 만일 프랑스어를 먼저 고려한다면, 한국어 원문은 ‘저질렀던’ 혹은 ‘잘못했던’ 그리고 ‘했던’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잘못했던’이 아니라 ‘잘못한’은 어떤 시제인지, 그래서 프랑스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은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를 형용사와의 조합은 현재를 나타낸다(서정수, 1996: 606). 위 예문에서 한국어 ‘잘못하다’와 ‘당하다’는 모두 동사이다. 따라서 ‘잘못한’과 ‘당한’은 분명히 과거의 행위를 표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어 복합과거는 시제의 관점에서 한국어

6)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어 과거 시제는 ‘있/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법 표지로 실현된다. 그런데 본 논문은 한국어 과거 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번역을 통한 프랑스어 복합 과거 및 이 시제의 의미 해석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모든 과거 형태와의 비교는 다음 연구로 남겨둔다.

로 ‘았’ 형태와 ‘-니’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d)에서 만일 프랑스어 문장을 원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당했던’ 혹은 ‘여러분이 당한’ 두 가지 번역 가능성을 가지며, 문체에 따라서 번역가는 선택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용례들은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번역 코퍼스 사이트 중 하나인 Linguee⁷⁾에서 추출한 것이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번역 관계로 제시되어 있는 아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어도 맥락에서 따라서 프랑스어의 복합과거(ai fait)가 영어에서 과거 혹은 현재완료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J’ai voté contre cette résolution malgré moi, mais je l’ai fait pour des raisons concrètes et sensées.

I voted against this resolution with a heavy heart but I **did** so for practical and sensible reasons.

- b. J’ai très mal dormi, j’ai fait un vrai cauchemar.

I slept extremely badly last night and **had** a real nightmare.

- c. Je l’ai fait précédemment pour formuler des observations à propos d’éléments de ce projet de loi ayant trait à la défense [...]

I **have done** it previously on comments directed to the aspects of this bill that deal with national defence and the safety and aeronautics aspects.

- d. [...] Terre puissent témoigner de la véracité de ce message, Moi j’ai fait en sorte que ces signes prophétisés dans les temps anciens, [...]

So that all men on earth may testify to the truth of this message, I **have made** the signs prophesized in ancient times, the signs that speak [...]

7) Linguee(<https://www.linguee.fr/>)는 일종의 온라인 번역 코퍼스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단어 혹은 표현을 핵심어로 해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두 언어간 비교 연구 혹은 번역 연구에 응용할 수 있다. 현재 유럽어 및 아시아어(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25개 언어를 비교할 수 있다.

동일한 과거 시제라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번역가의 문체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어 복합과거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2)의 사례에서는 없지만, (3)의 사례에서는 형태적으로 동일한 *ai fait*가 영어에서 과거(3a, 3b) 혹은 현재완료(3c, 3d)로 구분되어 번역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번역가가 복합과거를 해석하면서 과거의 행동(과거) 혹은 현재의 결과(완료),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내용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복합과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례들이 유의미한 것일 수 있으며, 번역 교육에서도 확실적인 번역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초급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 mort

4) a. 당신 애인은 백혈병으로 **죽었죠**. 그죠?.....

La fille que vous aimiez **est morte** de leucémie, j'en suis sûre...(그해 겨울)

b.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Seules les chambres secrètes abondent, la place **est morte**.(광장)

c. Le petit frère **est mort** en trois jours d'une broncho-pneumonie, le cœur n'a pas tenu.

작은 오빠는 기관지 폐염으로 사흘 동안 앓다가 **죽었다**. 심장이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연인)

d. Il est allé à l'hôpital. Il n'y **est pas mort**. Il **est mort** dans sa chambre.

그후 그는 병원으로 갔으나 거기서 **죽지** 않고 자기방에 옮겨와서 **죽었다**.(연인)

Mourir 동사의 과거분사인 *mort*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코퍼스에서는 상태가 아닌 행위에 관련된 맥락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faire*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국어 표현이 '죽었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대부분 맥락에서 동일했는

데, 예외적인 경우는 마지막 예문 (4d)에서 보는 것처럼 ‘죽지 않다’라는 부분이다. 이 예문에서는 Il n’y est pas mort와 Il est mort dans sa chambre 두 문장에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죽지 않았고, 방에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죽지 않다’라는 현재형의 형태로도 프랑스어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 entendu

5) a. Il n’a peut-être pas **entendu**.

듣지 못했나 봐요(모데라토)

b. Tu n’as peut-être pas **entendu** ?

안 들리나 보지?(모데라토)

c. J’ai **entendu** cette leçon, dit Chauvin.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고 쇼뱅이 말했다.(모데라토)

d. 석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선생님께서 들어오기 직전에

Quand il **a entendu** ça... juste avant votre arrivée...(우리들의)

e. 그러나 그동안 너희들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듣게 되자** 그냥 참을 수가 없었다.

Mais quand je vous **ai entendus** avouer ce que vous ressentiez en agissant ainsi, je n’ai pas pu me retenir.(우리들의)

f. 5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작년에 있었던 일을 얘기 **들었다**.

J’ai entendu parler de ce qui s’est passé l’année dernière.(우리들의)

g. 내 컷가에 갑자기 누군가의 고함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 왔다**.

Et puis soudain, j’ai **entendu** une voix m’appeler de très loin.(우리들의)

h. 문간에 오토바이 멧는 소리가 **나기에** 내다봤더니.....

J’ai **entendu** le bruit d’une moto s’arrêtant devant la porte, j’ai regardé, et...(광장)

Entendre 동사의 복합과거는 faire 동사와 mourir 동사와 달리 조금 다른 번

역 양상을 보인다. 앞선 두 동사의 경우를 보면, *entendre* 동사의 복합과거도 ‘들었다’로 번역이 되거나 혹은 한국어 원문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한국어 표현을 보면 ‘들었다’는 몇몇 예문(5b, 5c, 5g, 5h)에서는 과거시제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물론 몇몇 사례에서는 종속절에 사용되면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로 표현되어 *entendre* 동사 자체도 과거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l n'a peut-être pas entendu*(4a)와 *Tu n'as peut-être pas entendu?*(4b)는 주어만 다를 뿐 단어 및 문장 구성이 동일하다. 그렇지만 한국어 번역은 각각 ‘듣지 못했다’와 ‘안 들리나 보지’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번역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듣지 못했구나’ 정도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번역은 행위를 표현했다기보다는 결과적 상태, 다시 말해서 현재완료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복합과거를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복합과거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ourir*의 예문인 *Il n'y est pas mort*도 맥락에 따라서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다’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5.4. commencé

- 6) a. Et ils **ont commenc** à se parler de choses et d'autres.
그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모테라토)
- b. J'**ai commenc** à écrire dans un milieu qui me portait très fort à la pudeur.
나는 대단히 정숙한, 그런 환경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연인)
- c. 나는 떠벌리기 **시작했다**.
J'**ai commenc** mon discours.(그해 겨울)
- d. Il **a commenc** à souffrir là, dans la chambre, pour la première fois, il ne ment plus sur ce point.

그는 괴로와하기 **시작한다**. 그곳, 그 방안에서, 생전 처음으로 이 점에 관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연인)

e. Je crois que ma vie **a commenc** à se montrer à moi.

내 인생이 내 눈앞에 환히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연인)

Commencer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동사들과 마찬가지로의 번역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한국어에서 ‘시작했다’로 되어있었지만, (6d)처럼 ‘-하기 시작한다’로 현재로 번역이 된 부분이 있었다. 복합과거의 완료 가치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소설에서 문체적인 이유로 현재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다. (6d)에서는 두 번째 문장의 동사 *mentir*가 현재로 되어있고, 맥락상 현재 상황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시작한다’로 옮긴 것 같다. (6e)에서도 함께 출현하는 동사 *croire*가 현재로 되어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복합과거가 주절에 대한 선행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 인생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주절의 *croire*(현재시제)보다 앞선 선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작한’이라는 과거 표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앞선 예문도 괴로운 행위가 선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괴로와하기 시작했다’로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한국어 표현은 과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5.5. été

7) a. 어쨌든 처음 얼마 동안 그곳의 생활은 그런대로 만족스런 **것이였다**.

Tout compte fait, ma vie **a t** plutôt agréable au cours des premières semaines.(그해 겨울)

b. 그 다음은 엉망이**였다**.

Ensuite, ça **a t** le chaos.(그해 겨울)

c. 그때까진 좋**았어**.

Jusque-là, tout **a t** parfait(그해 겨울)

d. Il **a t** mon visage.

그것이 나의 얼굴**이다**.(연인)

e. Mais elle ne l'**a pas t**.

그러나 그 영상만은 그렇지 못했다.(연인)

f. Il dit que quant à lui il a t l'instrument de son propre malheur.

그는 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의 불행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덧붙인다.(연인)

g. Que toujours j'ai t triste.

나는 항상 얼마나 슬펐던가.(연인)

복합과거와 관련된 être 동사의 과거분사인 été가 출현하는 맥락을 보면 대체로 수동태 과거이거나 위의 예문에 제시된 것처럼 'être + 속사' 구조였다. 이 구조에서도 위의 예문처럼 대부분 과거로 표현이 되었는데, 『연인』에서 '그것이 나의 얼굴이다'(7d)처럼 현재로 번역이 되는 사례가 몇몇 확인되었다. 『연인』의 문체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être 동사의 모든 복합과거가 현재로 번역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과거로 번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맥락에 따른 선택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 이상 과거 시제가 현재로 현재 시제가 과거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문법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실용 텍스트가 아닌 문학 텍스트에서 이야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문체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제의 관점에서 현재와 과거의 교차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제시된 예문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프랑스어 교육의 관점에서는 제시된 예문들이 특정 용법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5.6. 반과거와의 관계

복합과거에 대한 기술은 전통적으로 반과거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엄밀한 의미에서 프랑스어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복합과거 자체의 의미보다는 문법적 구조, 다시 말해서 조동사의 문제 및 일치 문제에 있다. 앞서 기술된 것처럼 복합과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한국어 과거 시제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립쌍으로서의 반과거와 함께 고려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문제가 생긴다.

- 8) a. La dame reconsidéra une nouvelle fois l'objet qui **taït** devant elle.
선생은 눈앞에 목석처럼 **앉아있는** 이 아이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모데라토)
- b.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Est-ce que ce n' **taït** pas la petite fille qui s'approchait, sautant de pierre en pierre ?(소나기)
- c.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À partir de là, ce n' **taït** plus que des terres cultivées, jusqu'au pied de la colline.(소나기)
- d. D'y être habituée, tenez, c'est comme si on **entendait** son cœur.
거기 익숙해지는 건 뭐랄까, 자기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모데라토)
- e. Si Anne t' **entendait** !...
안느가 아버지 말을 **들었다면.....**”(슬픔이여)
- f. Si Anne m' **entendait** ?
안느가 내 말을 **듣는다면?**(슬픔이여)
- g. 전주를 울리는 바람 소리뿐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On n' **entendait** que le bruit du vent claquant sur les poteaux électriques, au point de couvrir l'aboiement des chiens.(그해 겨울)
- h. 아득히 먼 곳에서 아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Il **entendait** une voix lointaine.(깊고 푸른 밤)

위의 예들은 모두 번역 코퍼스에서 추출한 반과거 용례들이다. 아마도 첫 번째 예문이 소설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과거 시제 호응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순과거(복합과거)와 반과거 쌍이다. 반과거로 된 être는 상태이고, 단순과거인 reconsidérer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단순과거 대신에 복합과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국어 번역도 현재 시제가 사용되면서 과거 상황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었

을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단지 직접목적보어만 차이가 나는 두 문장 *si Anne t'entendait* !(8e)와 *si Anne m'entendait* ?(8f)에서 전자는 '들었다'라는 과거로 후자는 '듣는다'라는 현재로 번역되어 있다. Si라는 표지를 고려하면 이 두 문장은 조건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entendre*의 해석에서 한국어 번역을 고려한다면 (8e)의 '들었다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조건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만, (8f)의 '듣는다면'은 이러한 특징이 사라지고 단순한 조건의 의미만이 나타나는 것 같다. (8c)에서는 '밭이었다'로 되어있는데, 한국어 표현이 묘사적이라면, 앞서 설명했던 복합과거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합과거의 번역 그리고 반과거와의 대비는 문법서에 기술된 것처럼 고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번역 코퍼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과거 시제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었다'가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Mais elle ne l'a pas été/그러나 그 영상만은 그렇지 못했다'와 같은 번역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Il a été mon visage/그것이 나의 얼굴이다'와 같은 번역이 복합과거에 더 적합할 것이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어 문장이 *Il était mon visage* 였다면, 현재와의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나의 얼굴이었다'로 번역하는 것을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맥락에 따라서 복합과거는 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얼굴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반과거와 쌍을 이루었을 때는 '었다'와 '이다'의 결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행과 후행의 관계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사례들에서는 복합과거도 반과거도 한국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하게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묘사'와 '행위'라는 전통적인 구분법보다는 '정적인 상황'과 '역동적 혹은 현재적 상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물론 문법이라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오랜 연구의 축적이긴 하지만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어 교육에서도 단순히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 맥락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결론

현대 코퍼스 기반 연구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존 텍스트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 관찰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선택한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 도구를 통해서 추출한 복합과거 용례는 매우 다양하였다. 추출된 결과물들을 한국어 번역문과 비교하면서 분석한 결과 엄밀한 의미에서 기존 이론과는 특이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복합과거의 의미에 대한 기술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은 난해할 수 있다. 실제적 용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이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단 구체적인 용례들을 통해서 복합과거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프랑스어 시제인 복합과거의 기능이 한국어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 용례들은 기존의 이론서들에서 제시된 가공된 예들이 아니라 실제 문학 작품에서 추출된 용례들이기 때문에 복합과거의 실제 사용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사례들을 그리고 모든 사례들이 연구자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론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해당 이론에 적합한 용례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론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대부분은 예외적인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렇지만 예외라는 것은 기존의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복합과거의 한국어 번역 사례 관찰에서 출발하면서,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나 복합과거의 의미 양태를 한국어를 통해서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원문과 프랑스어 번역문을 비교하면서 주변 어휘들 및 맥락에 의해서 복합과거의 의미 가치인 현재 결과 및 과거 행위가 선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실제 사례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사전을 기술할 때도 단어의 의미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실제 사용 환경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곧 의미 맥

락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어 원문만이 아니라, 해당 프랑스어에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관찰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는 곧 복합과거 프랑스어-한국어 번역 맥락 목록이 될 수 있다.

물론, 더욱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코퍼스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대응쌍인 반과거와의 비교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코퍼스 기반 연구는 언어의 실제 사용에 관한 관찰 및 분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전통 언어학 이론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논쟁을 경험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어 문법 연구에서 시제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3) 「경험적 연구로서의 번역사례연구: 방법론적 고찰」, 『번역학연구』 14(2): 7-38.
- 김명관 (2012) 「프랑스어 학습에서 코퍼스의 역할」, 『프랑스학연구』 61: 73-97.
- 김명관 (2013) 「코퍼스를 활용한 프랑스어 번역: ‘이방인’ 병렬코퍼스를 활용한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83: 201-225.
- 김재혁 (2008) 「새로 발굴된 박용철의 번역 원고의 번역문법적 분석 - 초벌 번역원고를 통해 본 박용철의 번역태도」, 『독일문학』 107: 260-286.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출판원.
- 안동환 옮김 (2010) 『코퍼스언어학개론』, 안동환 역, 서울: 한국문화사. (Kennedy, Graeme (1998) *An Introduction to Corpus Linguistics*, Longman)
- 전성기 (2002) 『의미 번역 문법 - 불한번역과 한불번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전성기 (2007) 「인문학번역과 번역문법」, 『불어불문학연구』 70: 233-260.
- 전성기 (2016) 『어린왕자의 번역문법: 문법·작품·번역의 회통적 탐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준형 (2013) 「언어 교육에서 코퍼스 활용의 쟁점들」, 『프랑스어문교육』 44: 65-90.
- 조준형 (2014)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의 인식론적 고찰」, 『번역학연구』 15(3): 279-301.
- 조준형 (2017) 「번역코퍼스를 활용한 번역문법 연구 - 프랑스어 동사 aller의 사례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1: 305-332.
- 최희경 (2015)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연구: 국내외 연구 동향과 과제」, 『번역학연구』 16(2): 317-338.
- Arnaud, Antoine et Lancelot, Claude (1803) *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 de Port-Royal*, De l'imprimerie de Munier.
- Ballard, Michel (2007) 'Pour un rééquilibrage épistémologique en traductologie', *Quo vadis Translatologie?*, Frank & Timme, 17-34.
- Bennett, Gena R. (2010) *Using CORPORA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 corpus linguistics for teachers*,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etey, Sylvain, Durand, Jacques, Laks, Bernard & Lyche, Chantal (2011) 'De l'enseignement des variétés avec corpus à la formation à la variation sur corpus: des outils pour le français parlé', In Bertrand, O. & Schaffner, I. (éds). *Variétés, variations et formes du français*, Palaiseau: Editions de l'Ecole Polytechnique, 407-427.
- Flowerdew, Lynne (2012) *Corpora and Language Educ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Frankenberg-Garcia, Ana, Flowerdew, Lynne & Guy Aston (eds) (2012) *New Trends in Corpora and Language Learning*. London: Bloomsbury.
- Guillaume, Gustave (1984) *Temps et verbe*. Champion.
- Loock, Rudy (2016) *La traductologie de corpus*. Lille, PU. Septentrion.
- Maingueneau, Dominique (1981) *Approche de l'énonciation en linguistique française : Embrayeurs, « Temps », Discours rapporté*, Classiques Hachette, « Langue, linguistique, communication ».
- Ménard, Philippe (1973) *Manuel du français du moyen âge, 1. syntaxe de*

l'ancien français, Bordeaux, Sobodi.

Wilmet, Marc (1992) 'Le passé composé : histoire d'une forme', *Cahiers de Praxématique*, 19: 13-36.

코퍼스로 사용된 텍스트

불한 코퍼스⁸⁾:

Françoise Sagan, *Bonjour tristesse*, 『슬픔이여 안녕』

Marguerite Duras, *L'Amant*, 『연인』

Marguerite Duras, *Moderato Cantabile*, 『모데라토 칸타빌레』

한불 코퍼스 :

황순원 『소나기』, *L'Averse*

황순원 『별』, *Les étoiles*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Notre héros défiguré*

이문열 『그해 겨울』, *L'hiver, cette année-là*

이청준 『이어도』, *L'île d'IO*

황순원 『목님이 마을의 개』, *La chienne de Moknomi*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La Petite Balle lancée par un nain*

최인호 『깊고 푸른 밤』, *Une nuit bleue et profonde*

이문열 『금시조』, *L'oiseau aux ailes d'or*

최인훈 『광장』, *La Place*

황순원 『독짓는 늙은이』, *Le vieux Potier*

8) 코퍼스로 사용된 문학작품들은 저작권 문제와 함께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 제목만 언급한다.

[Abstract]

**A Study on meaning of French past tense, *passé composé*,
by using a translation corpus**

Cho, Joon-Hyung
(Korea University)

The meaning of a grammatical element is decided in a concrete context. As a past tense in French, the *Passé Composé* (in English, Perfect Past) takes two grammatical and practical semantics because of its syntactical structure “present of the auxiliary (French verb *avoir* and *être*) + past participle of the verb”. One is the past action and the other is the present result. By the way, The French use two different past tenses (*Passé Composé* and *Imparfait*) that work together in the normal situation. The *Imparfait* (in English, Imperfect Past) expresses the imperfect situation in the past in the theoretical frame. So this is an area of difficulty for French students.

I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useful to offer to students the texts containing various practical examples, especially translational texts. The translation is the result of contextual explorations by translator. Therefore, we can figure out the grammatical and practical significations of the *Passé Composé* by inductively examining the translation texts. And, by comparing the texts in French with the texts in Korean, which put in a translation relation, the students is able to know in a practical way its meaning.

- ▶ Key Words: *Passé Composé*, translation grammar, Perfect Past tense, French tense, translation corpus
- ▶ 주제어: 복합과거, 번역문법, 과거완료시제, 프랑스 시제, 번역 코퍼스

조준형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chojh4net@naver.com

관심분야: 코퍼스 번역학, 번역평가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